

# 나주 '영산포 흥어·한우축제' 오는 22일 팡파르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일원  
흥어 50%·한우 30% 할인  
16만㎡ 양귀비·안개초 장관  
로컬푸드 플라마켓 등 '풍성'



나주시가 5월22일부터 봄 축제 시즌을 장식하는 '제22회 영산포 흥어·한우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영산강 둔치공원 인근에 펼쳐진 꽃양귀비 군락 모습. <나주시제공>

나주시가 봄 축제 시즌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할 '제22회 영산포 흥어·한우축제'를 개최하며, 전국 상춘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5일 나주시와 영산포 흥어·한우축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열리는 '천년나주목읍 성문화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5월 나주 전역을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축제의 핵심은 단연 남도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미식 경험으로, '영산포 속성 흥어'와 나주 대표 한우 브랜드 '나주들애찬'을 파격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국내산 흥어 50%, 수입산 흥어 50%의 할인 판매가 진행되며, 한우 역시 지역 판매장을 통해 30% 저렴하게 구매해 현장에 마련된 구이존에서 즉시 맛볼 수 있다. 먹거리 위주였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공간의 매력을 극대화해 축제장 주변에 16만㎡(약 4만8천평) 규모의 거대한 붉은색 꽃양귀비와 하얀 안개초 군락이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며 압도적인 포토존과 산책로를 제공한다.

아울러 에어바운스, 매직 버블스, 랜덤 플레이 댄스 등 가족 단위 관광객과 청년층을 겨냥한 상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로컬푸드 플라마켓도 풍성하게 채워진다. 관람 편의를 위해 영산강 둔치체육공원과 인근 주차장 등은 전면 무료로 개방된다.

또한 축제 분위기를 이끌 트로트 라인업도 확정돼 개막일인 22일 류지광, 박성현 등을 시작으로, 23일에는 '현역가왕2'를 통해 트로트 황태자로 도약한 신승태가 출격해 무대를 달군다.

폐막일인 24일에는 '장구의 신' 박석진이 대미를 장식하며, 영산강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사흘간의 벅찬 여정을 마무리한다.

장행준 영산포 흥어·한우축제 추진위원장은 "5월의 나주는 미식과 문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축제 도시가 될 것"이라며 "역사와 전통, 맛과 멋이 살아있는 나주에서 특별하고 잊지 못할 힐링의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최장수 축제인 영산포 흥어·한우 축제는 지난해 단 사흘 만에 13만5천여명의 폭발적인 방문객을 동원하며 막강한 흥행력을 입증한 바 있다. /나주=정준환 기자

## 강진군-韓관광공사, 인구감소 위기 극복 맞손

6억5천만원 투입...배터리 사업

전자책 출간·위케이션 등 추진



작가 대상 전자책 출간 18일 체류비 비롯해 트래킹·캠핑 결합 자연 체험, 글로벌 여성 대상 갯벌 여행, 발달장애아 가족 힐링 돌봄, 위케이션 등 강진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실증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군은 향후 '사진 진단-설계-실행-평가'로 이어지는 4단계 실증 운영 체계를 가동하고, 타깃

고객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투입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히 검증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혁신 기업들의 참신한 기획력과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의 인프라가 시너지를 발휘해, 스쳐 가는 관광지를 넘어 '찾아와 머무는 생활인구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이은순 목포학부모회장, 전남학부모연합회장 '출사표'

오는 8일 선거...지역 대표 44명 투표

소통 강화·학생 교육환경 보호 등 약속



전남학부모연합회 회장 후보로 나선 이 회장은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우리는 전남 학부모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랜 기간 다져온 현장 중심의 경험과 실천력을 앞세웠다.

이 회장은 출마의 변을 통해 "학부모회는 단순한 참관이나 참여를 넘어 학교와 가정, 지역 사회가 함께 토틀바퀴처럼 협력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주체"라며 "최근 화두로 떠오른 전남·광주 통합 논의 속에서도 우리 지역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3대 핵심 공약으로 ▲지역별 학부모 의견의 체계적 수렴을 위한 소통 구조 강화 ▲전남·광주 통합 과정 내 학부모 권익 및 학생 교육 환경 선제적 보호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학부모 학교 참여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의 가장 큰 강점은 현장에서 검증된 '탄탄한 실무 경험'으로, 지난 2019년 목포부설 초 학부모회장을 시작으로 목포홍일중, 문태고, 영흥중 등에서 학부모회장과 운영위원을 두루 거쳤다.

이후 목포학부모연합회를 이끌며 학교 급식 점검단, 교권보호위원, 전남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 등 다방면에서 활약한 공로로 '2025년 목포교육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 새마을회 주부독서 동호회에서 7년째 독서 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무안 지역 수해 당시에는 직접 복구 현장으로 달려가는 등 위기 상황에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여왔다.

끝으로 이 회장은 "처음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20여명의 임원진과 지역 조직을 직접 운영해 보여 현장에서 검증된 후보"라며 "목포에서 증명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남 학부모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촘촘히 연결해, 그 힘이 실질적인 교육정책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목포=정혜선 기자

## 함평군, 여름철 '자연재난 안전망' 가동

집중호우·태풍 등 선제 대비

함평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해 빈틈없는 사전 점검과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주민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5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부서별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2026

년 여름철 자연재난 추진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본격적인 여름철 재난 대책 기간(5월15일-10월15일)을 앞두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침수 피해를 겪었던 함평5일시장 주변과 배수펌프장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빗물받이 및 우·오수관로 준설 작업을 선제적으로 마쳐 재

난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해당 대책 기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빈틈없는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취약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하춘 함평군 부군수는 "올해도 옐니노 현상 등으로 인해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체계를 통해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영규 기자

## 진도군, 조도면 가사지구 지적재조사 본격화

국비 2억여원 투입 1천57필지 대상

진도군은 5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과 4월 총 4차례에 걸쳐 조도면 가사도리 각 마을회관에서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가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절차와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법 등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사업 대상지인 조도면 가사지구는 총 1천57필지(97만4천28㎡) 규모로, 군은 전액 국

비 2억1천722만원을 확보해 오는 2027년 말까지 정확한 디지털 지적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진도군은 지금까지 총 41개 지구(9천700필지)의 지적재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지난해 착수한 고군면 오일시 지구와 지산면 인지 지구(1천71필지)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완료하면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분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도 크게 상승한다"며 "원활한 국책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 영광군, 사회적경제기업 'AI 실무 아카데미' 성료

마케팅·라이브커머스 실습 호응

영광군은 "최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영광군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및 컨설팅'을 운영했다. <사진>

이번 아카데미는 참여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기초와 심화 과정으로 세분화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특화 지원사업 단계별 로드맵과 신산업 정책 연계 전략을 비롯해 ▲AI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및 상품 홍보 콘텐츠 제작 ▲유튜브 라이브커머스 실전 운영 등 철저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습 위주로 꾸려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군은 아카데미 수료 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한 '1대1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탄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해남군, 주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내달 5일까지...일상·경제·자치법규 대상

해남군은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2026 해남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군민이 직접 일상 속 불편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참여형 제도로, 오는 6월5일까지 진행되며 해남군민과 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신산업, 복지, 자치법규 등 일상생활과 경제 전반의 행정 규제다.

특히 군은 청년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제안을 집중적으로 발굴 계획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40%), 창의성(30%), 효과성(30%)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공모 참여는 군청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해남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채택된 아이디어는 중앙부처 건의 및 자치법규 개정 등 실제 행정에 적극 반영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 사항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규제혁신 과제"라며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참신한 개선안이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